



무주군여성단체협, 사랑 나눔 온정의 손길 이어져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는 지난 29일 무주여성센터에서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무주기부의 날을 맞아 사랑 나눔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농가주부모임, 한국부인회, 생활개선회 대한적십자사 새마을부녀회, 아이코피아, 한국여성농업인 여성지원봉사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맹회 등 총10개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성금을 한미은행 한미은행의 마음을 나누는네 동참하고자 각 단체에서 새우젓을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사랑 나눔 성금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에서 (재)교육발전재단에게 기탁을 하여 우수 인재 발굴·육성 및 무주군 교육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적십자사, 덕진·완산 수영장 생존수영 교육장 선정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산하 덕진·완산 수영장이 대한적십자사 생존수영 안전인증교육장으로 선정됐다고 30일 전했다. 생존수영 안전 교육장은 선정을 원하는 수영장 측에서 전북적십자사로 신청 후 시설의 규격 및 안전성, 시설내 장비의 적합성, 전문강사 배치 여부, 위생·청결상태 등 지정 기준을 통과한 수영장에 한해 심사 후 선정된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명구조요원 자격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강사를 육성하고 있다. 생존수영강사는 초등학교, 일반인 대상으로 2시간 정도의 기초 생존수영, 물에서 뜨기, 구명조끼 착용법 등의 강습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적십자사는 수상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생존수영 안전 교육장 신청을 상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항은 063-280-5843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다문화가족 대상 소방서비스 제공

전주덕진소방서는 덕진구 다문화가족 화재 안전을 위해 두 팔을 걸었다. 겨울철 화재 취약 다문화가족 3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하고,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난 상황에 취약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화재와 각종 응급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내부 강사 봉역으로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119신고를 주저하는 외국인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는 "소방서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더 다양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저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호원대 항공관광학과,항공 SMILE CONTEST 개최

호원대(총장 강희성) 항공관광학과가 지난 29일 오후 2시 5동 대강당에서 2022년 제7회 항공 SMILE CONTEST'를 개최했다. SMILE CONTEST(스마일콘테스트)는 항공관광학과의 대표 행사로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선정한 주제로 한국어 또는 외국어 스피치 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재학생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을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사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만에 개최된 제7회 SMILE CONTEST 1부에서는 강희성 총장의 격려사와 주요 보직교수 및 학과 교수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재학생들의 학술제와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재학생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학과생활을 통해 성장된 재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는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의 사무장 역임 및 대통령 전용기인 CODE1 승무원 역임 최초 여성 교육교관 역임 등 교수진들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권산=김갑근 기자

'Well done 전북 · Do well 전북'

전북 경진원, '2022 창업인의 날' 성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운, 이하 경진원)은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창업인의 날' 행사를 30일 개최했다. '창업인의 날'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지역 창업자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 확산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희망리테네파키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북시제품제작소 운영 지원 사업 등 경진원 내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Well done 전북 Do well 전북이라는 주제로 한해 사업 성과를 교류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는 이번 행사는 창업지원사업 성과보고, 성공사례 발표, 원장상 수여, 차년도 경진원 사업 성장 사다리 컨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의 우수기업으로 총 4개사를 선정했다. 2022년 올스타(소액/하이테크) Start-up 공모전 대상 수상한 (주)부름커뮤니티(대표이사 최호림),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후 19년 4.6억에서 21년 30억까지 지속적 매출 성장을 기록한 (주)엔비시스(대표이사 조병일), 최근 라오스 농림부 협업 재배계약 및 해외 바이오회사와 200만 규모 구매계약을 체결한 (농)주)뿌옇은누에(대표이사 이승환), 전국 40여개 기관에 약 52억



규모의 정밀어과장지 계약을 수주한 (주)승원(고승호 대표이사) 4개사가 올 한해 성과를 인정받아 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경진원 사업 전문가들과 차년도 경진원 지원사업 안내 및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 '창업/보육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일자리 지원, FTA 컨설팅' 등 경진원이 구축한 사업 성장 사다리 연계를 통해 창업자들의 다음 단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현운 원장은 "이 자리는 올 한해 창업자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려운 환경속에도 성과 창출을 위해 애써주신 창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우정청, 한국미술협 전북지회 무료대관 서비스 협약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머름), 한국미술협 전북지회(지회장 백승관)는 전북지방우정청 회의실에서 우체국 공간을 활용한 「전시회 무료대관 서비스」를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이번 '전시회 무료대관 서비스' 협약은 전시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 예술작가들에게 창작작품을 공유할 기회를 주고, 전북 지역민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은 우체국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백승관 지회장은 "도민들이 우체국이라는 공간에서 작가들과 작품에 대한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미술 11개 시·군 지부와 함께 전북도민도 쉽게 미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꽃머름 청장은 "전북지방우정청이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진정한 의미의 우정사업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농협, '이웃사랑 김장축제' 따뜻한 겨울나기 전달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는 전주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김장축제를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녀회원과 여성복지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마련했다. 전주농협은 이날 담긴 김장김치 2,000포기를 마을경로당, 시설단체, 홀몸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장을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일손부족 및 농업경쟁비 등 어려운 농업인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농협은 약 30여 년간 해마다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취약계층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하는 나눔행사도 진행하며 나눔의 온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경찰, 무주군 CCTV관제센터 인증패 수여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지난 30일 무주군청 신업건설 국장 안전재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CTV관제센터에 경찰서장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패는 변밀한 관찰력으로 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와 주·야간 음지에서 묵묵히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 5월 개소한 이후 절도범 검거, 차매노인 등 실종자의 동선 파악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 군민들의 일상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봉현 서장은 야간, 취약시간대 집중력을 발휘해 각종 범죄 대응에 노력하는 관제요원들의 업무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전주 로타리, 성요셉동산 찾아 김장 봉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회장 문우진)은 지난 28~30일, 소양에 소재한 성요셉동산 양로원을 방문하여 건어물 간장류, 설당 식용유 등 생필품(170만원 상당) 전달과 더불어 이곳 어르신들이 겨울 내내 드실 1천포기 김장 봉사활동을 성당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펼쳤다. 문우진 회장은 "내내 포근했던 날씨가 김장 앞두고 너무 추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협조로 잘 마쳐져 되어 감사하고, 한포기 한포기 부도 남이 드실 김치다 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손을 보탬으로써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편 클럽에서는 이곳 성요셉동산 양로원과 1997년 자매결연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필요로 하는 물품 지원 및 정기적으로 오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농협 전북본부, 도교육청에 사랑의 쌀 400포기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사랑의 쌀' 400포(4,000kg, 일천만원 상당)를 30일 전달했다. 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경민 본부장, 서거석 교육감, 이재문 전북도교육청 지접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은 전라북도 청소년복지지원사업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지역이동센터에 지원될 예정이다. 농협과 전북도교육청은 농업인의날 맞이 가래떡 나눔 캠페인, 전북 쌀 지키기 88릴레이 챌린지, 사랑의 쌀 기탁 등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을 집중 추진해나가고 있다. 장경민 본부장은 "이번에 전달된 쌀이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임실군 일진제강 현장행정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임실군에 소재한 '일진제강'을 방문해 공장 화재안전 강화 위한 대형공장시설 안전관리 현장행정 지도를 지난달 30일 추진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화재 발생시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높은 대형공장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방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공장 현황과 소방안전대책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장생산 라인 점검을했고, 공장 내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상태 확인했다. 서장은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사항, 화재시 대피법·소방시설 사용법 안내,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최아영 기자

무주군, 양성청소년문화의집 정책포럼 은상 수상

무주양성청소년문화의집이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22년 전라북도 공모사업 '우리 동네 정책을 디자인하라' 정책포럼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12일, 2022 전라북도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라북도의회장상에 연이은 수상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양성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정책제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어린이보호구역 추가로 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위한 제안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양성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험한 통행에 노출됐음을 파악했으며, 온라인으로 무주군청에 민원 접수 및 답변을 토대로 정책제안을 준비했다. 양성청소년운영위원회 김은우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예수병원, 봉동로타리클럽 글로벌보조금사업 협약

예수병원(병원장 신홍식)은 국제로타리 3670지구 봉동로타리클럽이 주관하는 22-23 글로벌보조금사업(자해·자살 청소년 마음챙김 프로젝트)을 진행하고자 MOU를 가졌다고 30일 알렸다. 청소년 자해·자살 청소년 마음챙김 프로젝트는 예수병원과 봉동로타리클럽 그리고 원주군청이 협력하는 민·관·학 프로젝트로 위기청소년들의 자해·자살 흔적을 지우주기 위해 수술, 레이저치료 등 직접적인 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수병원은 청소년들의 자해 흔적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청소년들의 마음가짐과 진로방해요인을 이겨내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홍식 병원장은 "청소년들의 마음가짐과 심리에 영향을 주는 신체의 흔적들은 더이상 꿈과 희망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아픔으로 기억되선 안된다"라며 "민·관·학 협동 프로젝트만큼 소외계층과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전했다. /김영준 기자